



출고 기다리다 못해... 기아차 봉고 해약 사태

지난달만 2040대...해약율 30%
노사간 입장차로 증산 논의 못해

기아차 '봉고'의 해약사태가 심상치 않다. 해약률이 29.3%로, 10대 중 3대 꼴로 해약되고 있다. 고객들이 출고를 기다리다 못해 포기하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광주3공장에서 생산하는 봉고 1t트럭의 지난달 해약이 2040대에 달했다. 해약률은 29.3%다. 지난 4월 21.1%, 5월 25.9% 등 해약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봉고트럭의 대기물량은 내수 9000여대, 수출 1만2000대 등 총 2만 1000여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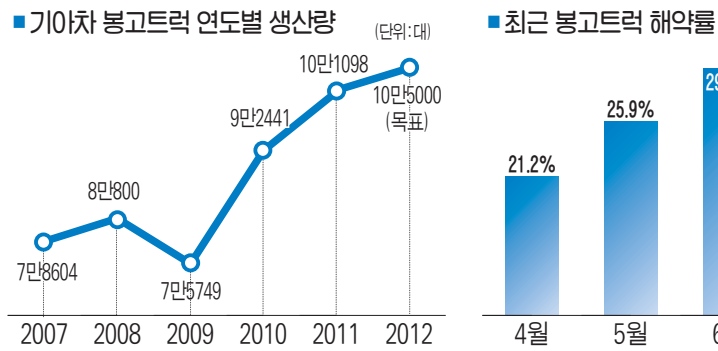
당장 계약해도 차량 인수까지의 대략 두 달 반이 걸리고 있다.

그만큼 고객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다.

도소매업을 하는 박모(54)씨는 "우리같은 사람은 시간이 돈인데 차는 나오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해약하고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봉고트럭은 지난 2010년부터 주문이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광주공장 생산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생산량 10만대(10만1098대)를 넘어섰다. 올해 목표는 10만5000대로, 지난 6월 말까지 5만880대를 생산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관측된다.

봉고트럭의 수요는 서민의 경제 활동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IMF 외



환위기 당시 일반 승용차 매출은 크게 떨어졌지만 봉고 등 개인 트럭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불황일 때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서민차량'으로, '움직이는 포장마차' '서민 재산목록 1호' 등으로 불리며 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퇴직 이후 귀농인구가 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봉고트럭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봉고트럭의 적체가 심해지자 올해 초 증산방안을 내놓았다. 시간당 21대를 생산하던 기존 라인 운영을 2대 더 늘려 시간당 23대를 생산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광주3공장 노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근 운영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로 생산량 증대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납기장기화로 인해 불만이 쌓이면서 고객들이 하나 둘 떠나고 있다"며 "문제는 증산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봉고트럭뿐만 아니라 기아차 전체에 대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터미널 3년 연속 서비스 우수 능력협회 품질지수 1위

금호터미널(유·스퀘어)이 3년 연속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금호터미널은 17일 한국능률협회가 발표한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에서 고객을 가장 친절하게 응대한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터미널은 2010년 처음 고속버스터미널 부문이 신설된 이후 3년 연속 서비스 품질지수 1

위를 기록했다.

금호터미널은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부서 임직원과 고객의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인 '현장 60', '고객님 기억하기' 등 고객행복경영을 시행하고 있다.

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서비스 실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서비스 평가와 자체적인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경영이 좋은 평가

를 받았다.

이번 고속버스터미널 부문 조사 대상은 금호터미널을 비롯해 대전 복합터미널, 인천종합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 5개다.

한편 KSQI는 국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접점에서 고객이 체감하는 품질 수준을 평가해 서비스 이행률 관점에서 지수화한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업체 36%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기업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다.

17일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 1만275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2011년도 건설업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건설사들의 수익성 지표가 두드러지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종합건설사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5.0%에서 4.1%로, 이자보상비율은 269.4%에서

227.1%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업체는 17.2%인 1천761개사,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36.4%인 3천740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 수치화한 채무상환능력 지표로, 100%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다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수자는 2010년 24.1%에서 12.3%포인트나 급증해 건설업체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매출액증가율은 비건설 부문의 매출(겸업매출)에 힘입어 2010년 3.9%에서 2011년 8.1%로 크게 올랐고, 유동비율(136.6%)과 부채비율(147.1%)은 재작년과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잇따른 자산매각에 따른 유영자산 감소로 총자본증가율은 전년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연합뉴스



전남방직-협력업체 상생협약

지역 대표기업인 전방(주)(공장장 김옥진)은 최근 노사 협력선언식을 한 데 이어 협력업체인 광주섬유·금성기업·한일건기·전방오토와 상생협약 체결했다. (사진)

전방 노사는 동반 성장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다짐했다.

전방과 협력업체들은 대·중소기업의 상생 경영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사 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까지는 광주 노사민

정협의체의 중추 운영기관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광주경제자총협회, 광주시가 노사 파트너십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최근 지역 노사관계의 우려를 씻어내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업이 인권증진 앞장서자"

광주상의·광주시 공동 워크숍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홍석)는 17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세미나실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2012 기업인권(사회적 책임) 경영진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주요 기업체 임직원과 유관기관 사회적 책임(CSR)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기업인권 증진을 위한 역할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최정철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장은 "기업인권의 이해"라는 주제발표에서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 대행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철기 UN글로벌프랙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기업이 제품중심시대에서 소비자지향시대를 거쳐 가치주도시대가 도래했다"며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업인권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기관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지역 기업들의 기업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월 주택매매거래량 급감

5만6922건 전월보다 16%나 줄어

최근 주택경기 침체에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5만6922건으로 지난 5월(6만8047건)보다 16.3%, 지난 해 같은 달(8만509가구)보다 29.3%

각각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거래량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월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6월 들어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폭도 5월까지 20.2%로 축소됐다가 6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1675건으로 전월보다 11.7%, 전년 동월보다 24.1%가 각각 감소했다.

지방은 3만5247건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32.1%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3만706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32.9% 감소했다. 단독·다가구는 9009건으로 같은 기간 22.9%, 다세대·연립은 1만8444건으로 20.2% 감소했다.

거래량이 줄면서 실거래가도 크게 하락했다.

/연합뉴스

수입차 개방 25년...점유율 10% 돌파 눈앞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이 개방된 지 25년을 맞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념행사를 열어 지난 25년간 활동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1987년 메르세데스-벤츠의 수입으로 출발한 수입차 업계에는 현재 25개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다.

업계는 2009년 이후를 제도약의 성

장기로 꼽는다. 작년에는 10만대의 벽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판매대수 12만대·점유율 10%가 예상된다.

현재 수입차 시장에서는 25개 브랜드가 350개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 260개 전시장, 260개 서비스 센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수입차 평균 판매가는 작년 기준 6300만원으로, 2003년 7700만원보다 낮아졌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21.96 (+4.17)
코스닥지수	480.61 (-2.89)
금리 (국고채 3년)	2.92% (-0.03)
원·달러 환율	1,143.60원 (-3.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제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I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물때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월계수타운

소각량상거리

- 현대
- 금호대우
- 한국은행
- 롯데대우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